

꽃가루 알러지

하루밤새에 검정색 자동차 색깔이 노오란색으로 변했다. 꽃가루가 온 천지를 뒤덮은 것 같다. 봄이 소리 소문없이 오는가 했더니 벌써 여름으로 자리바꿈을 할려나.. 이미 마음이 떠난 여자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되돌아설까마는 아직 내 사랑은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떠날 준비를 하는 것 같아 그런 봄이 알립다. 하지만 떠날 녀은 떠나더라도 남아있는 나는 반팔 셔츠와 반바지 차림에 시원한 메밀국수로 저녁 한끼를 해결한다.

나는 해마다 봄철이면 꽃가루 알러지로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자다가도 두세번 깨기가 다반사고 시도 때도 없이 콧물이 흐르고 눈물도 흐르니 바보가 따로 없다. 고객과의 상담이 주업무인데 목소리는 코맹맹이 소리에다가 느닷없이 재치기를 하기 일쑤고, 콧물을 훌쩍거리다가 견디지 못하면 코를 풀어야 한다. 아무리 고객에게 사전 양해를 구한다지만 지저분하게 보이기는 매 한가지이다. 견디다 못해 약을 먹으니 머리는 멍하고 잠을 충분히 못자서 눈은 충혈되어 있고 코를 하도 풀어 코 끝이 빨갱게 혈었다. 한국에서 살 때에는 알러지라는 병을 알지도 못했다. 이민와서 2년이 막 지난 봄날로 기억된다. 하루는 감기에 걸린 것같았다. 갑자기 콧물이 흐르고 재치기를 하는 것이다. 누구나 자기 몸은 자기가 제일 잘 안다. 나는 일년에 한두번은 심한 감기 몸살을 앓곤 했다. 그러면 약국에서 지어준 감기 몸살 약을 한봉지 먹고 이불 뒤집어 쓰고 땀을 흠뻑 흘리면 아침에 가뿐히 낫곤했다. 그런데 이번 감기는 한국에서 가져온 약을 먹어도 낫지 않고 점점 심해지는 것이었다. 그 당시에는 교회를 나가지도 않았고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었기에 어디다가 병 증세를 물어 볼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한달을 고생 고생하다가 도저히 견디지 못해 한국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을 찾아갔다. 본래 나는 병원가는 것을 무진장 싫어한다. 미국에 와서도 10년 넘게 병원에 간 적이 없다. 정녕 불안해서 종합 검사를 받아야 하거나 치료를 요하면 한국에 나가서 병원 치료를 받는게 마음 편하다고 생각하는 반푼수다. 그런데 그 봄날에 감기약을 먹어도 먹어도 낫지를 않으니 할수 없어서 처음으로 병원을 찾은 것이다. 의사는 나의 증세를 듣자마자 샘플약

같은 것을 주면서 크게 걱정하지말라고 한다. 그러면서 주사도 놓치 않고 약 몇알만 주고 \$80 불을 받는 것이다. 그 당시의 내 처지에 \$80 불은 큰 돈이었다. 미국 병원비가 비싼 줄은 미리 짐작은 했지만 아무리 의료보험이 없어도 그렇지, 샘플 약 몇알에 \$80 불은 너무 비싸다는 생각으로 집에 오는 차 안에서 화김에 약 한알을 먹었다. 그런데 이게 웬 기적이나. 갑자기 콧물이 멈추고 코가 뻥 뚫리더니 재치기도 멈추는 것이었다. 나는 그분을 한참동안 존경하는 명의로 생각했다. 하지만 다음 해도 똑같은 증세가 발생하여 주변에 물어보니 그게 <꽃가루 알러지>라는 것이다. 미국에 이민와서 10년쯤 살다보면 생기는 병인데 이민 3년차에 걸렸으니 미국 체질이라나 뭐라나. 그 때부터 지금까지 봄만 되면 알러지를 달고 산다. 가까운 지인은 어디에 유명한 한의사가 있는데 침 한방이면 고생 끝난다고 강력 추천한다. 하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침을 무서워한다. 태어나서 한번도 침을 맞아본 적이 없다. 버틸 때까지 버티어 볼 심산이다.

알러지는 내 몸의 면역체계가 무너져서 생긴 것이라면 식생활이나 생활습관을 바꾸어 적응해 보는 것이 순리라고 변명을 한다. 더 사족을 달아 말의 잔치를 하자면, 고통은 안고 사는 것이지 고통을 극복하거나 이기려 하지말아야 한다고. 함께 살다보면 고통은 자연스럽게 잊혀지는 것이라고 말이다. 사실 봄이 잘못을 한 것은 없지 않은가. 봄에 꽃가루가 날리는 것은 당연하고 그 꽃가루로 인해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고 새로운 생명들이 소생하고 번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봄을 그리워하고 기다렸던 것이 아닌가. 모든 사물에는 강점과 약점, 기회요소와 위협요소가 상존한다. 이 지구상에 신이 창조한 창조물은 조화로움으로 완벽을 이룬다. 하물며 완벽한 사업체는 없다. 사람들은 꿈의 사업체를 찾는다. 하지만 약점과 위협요소가 없는 사업체는 없다. 약점을 모르거나 없다고 착각할 뿐이다. 사업은 많은 불확실한 가변요소들이 결합되어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러니 똑같은 사업체라고 하더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언제 했느냐, 또 주변 환경적 변화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것이다. 우리는 추운 겨울이면 빨리 봄이 오기만을 학수고대한다. 하지만 봄은 꽃가루 알러지와 함께 오는데도 항상 고통스런 알러지는 까맣게 잊고 봄만을 기다린다. 그렇게 따지면 여름은 약점이 없고 가을은 약점이 없을까. 겨울은 약점만 있을까. 아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두 약점은 있지만 살면서 감사하고

즐겁게 보완하고 인내로 견디어 내는 것이다. 이민사회의 사업은 대부분이 먹고 사는 일이 주업인 소규모 장사일 뿐이다.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기다린다면 언제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인지, 일하지 않고 매니저가 관리하면서 수익이 좋은 사업체라는 것이 있거나 한건지,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힘들게 일해야 먹고 사는 다른 사람들은 정녕 바보들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한번 망가진 경기는 빨리 회복되지 않는다. 서민들이 경기가 좋아졌다고 피부에 느낄 정도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더 나빠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은행 융자도 조건이 많이 완화되었고 좋은 매물도 많다. 사업체마다 약점은 있지만 장사는 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실패보다 못한 것이라 하지 않는가. 발전도 변화도 없는 무능함이다. 꽃가루 알러지가 있으면 어때. 이제 그만 뜸드리시고 봄나들이 하심은 어떠하실런지...